

일본, 패전일 가해 책임 6년째 무언급

아베, 기존 총리와 다르게 '반성' 표현 외면 일왕 '깊은 반성' 사죄... 세계평화 발전 기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 중전일(패전일)을 맞아 가진 희생자 추도식에서 또다시 일본의 전쟁 가해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일본 부도칸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총리들은 지난 1994년 무라야마 도미미치 총리 이후 '전몰자추도식'에서 가해 책임을 언급해왔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2007년 1차 정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전쟁의 반성에 입각해 부전의 맹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총리에 다시 취임해 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에는 올해까지 6년째 '반성'과 '부

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는 "전후 우리나라(일본)는 평화를 중요시하는 나라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 써왔다"며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하면서 어떤 시대에도 이러한 부동의 방침을 일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만인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왔다"며 "지금을 사는 세대, 내일을 사는 세대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추도

식에 참석한 아키히토 일왕은 "전후에 길게 이어지는 평화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전몰자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일본의 가해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아베 총리와 대비된다.

일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과 함께 전쟁터에서 흩어져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대해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4세 소년 미버몬트 주지사 도전 미국 버몬트 주지사에 도전하는 14살 소년 이선 소녀본의 사진으로 촬영날짜는 미상. 외신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녀본이 14일(현지시간) 버몬트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나서 다른 3명의 후보와 경쟁을 벌인다고 13일 보도했다. 소녀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가정의 대변자"라고 주장했다. 버몬트 주는 나이 제한 없이 버몬트 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후보는 누구라도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서 교량 붕괴

목격자들 "종말의 한 장면 같아" ... 26명 사망

14일(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서북부 리구리아 주 제노바 A10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모란디 다리 붕괴 사고로 최소 2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구리아 주 당국은 붕괴 현장에서 두 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병원에서 옮겨진 부상자 16명 가운데 한 명이 끝내 숨져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AP,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탈리아 현지 ANSA통신은 소방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 총 35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부상자 중 9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무너진 교량 구간은 길이 약 80m 길이로 당시 다리 위에 있던 승용차와 트럭 등 약 35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량 아래와 인근에는 주택과 건물, 공장 등이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무

너지 콘크리트 터미가 이들 주택과 건물 등을 덮치지 않았다.

당시 교량 위에 있었던 운전자 알레산드로 메그나는 RAI 라디오에 "갑자기 다리가 그 위에 있던 차들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며 "정말 종말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RAI TV에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엄청난 굉음이 들렸던 다리가 마치 밀가루 터미처럼 무너져내렸다고 전했다.

다리 밑에 서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남성은 AP통신에 교량이 무너지면서 생긴 충격파로 몸이 10m 이상 날아갔다면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 버스 운전자도 현지 언론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맨발로 뛰쳐나와 달렸다. 너무 끔찍했다"며 몸서리를 쳤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구리아 주 제노바 A10 고속도로에서 모란디 다리가 붕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로 최소 26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중에 위독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는 35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완공된 지 50년 된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리 위를 달리던 승용차와 트럭 등 약 35대의 차량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베트남 다낭 '골든 브릿지' 인기몰이

올 상반기 400만명 몰려

독창적인 모양으로 만든 베트남 중부 관광지 다낭의 '골든 브릿지'가 해외 언론 등의 찬사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황금색인 골든 브릿지는 해발 1,400m에 있는 다낭시 바나힐 리조트의 프랑스 마을 모형과 사탕의 정원을 잇는 길이 150m 다리로 거대한 양손으로 받치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15일 베트남통신(VNA) 등 현지 언

론에 따르면 확 트인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이 다리는 지난 6월 공식 개장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응우 판 빈 다낭시 관광공장은 "지난 7월 말 다낭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명 가운데 2명은 바나힐의 골든 브릿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다낭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한 400만여명이 이 가운데 160만 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인도, 10월부터 한국인 '도착비자' 적용

일본인에 이어 두번째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오는 10월부터 현지 도착 후에도 공항에서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현지시간) 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도착비자' (visa on arrival) 제도를 적용한다.

도착비자를 발급해주는 곳은 뉴델리, 뭘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6개 공항이다.

비자 종류는 비즈니스, 관광, 회의, 의료 등이다. 비자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이며 두 차례 입국 가능한 '더블 비자'로 발급된다.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는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항 비자카운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확인 절차 뒤 비자수수료를

납부하면 입국심사대에서 도착비자 스탬프 형식으로 발급된다.

현재 인도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관광, 비즈니스 등의 일반비자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받아서 출국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될 도착비자는 한국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착비자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도는 도착비자 제도를 운용하다가 2014년 11월에 폐지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일본인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도착비자 제도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도착비자 발급 등 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1년마다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2년까지 유인우주선 발사한다"

모디 인도총리 연설

인도가 오는 2022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레드포트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유인우주선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뿐이다. 인도는 유인우주선 개발을 통해 이들 나라와 나란히 우주항공 강국 대열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우주과학 분야

에서 늘 앞서왔으며 이제 2022년 또는 그 이전에 인도의 자녀가 인도 국기를 손에 들고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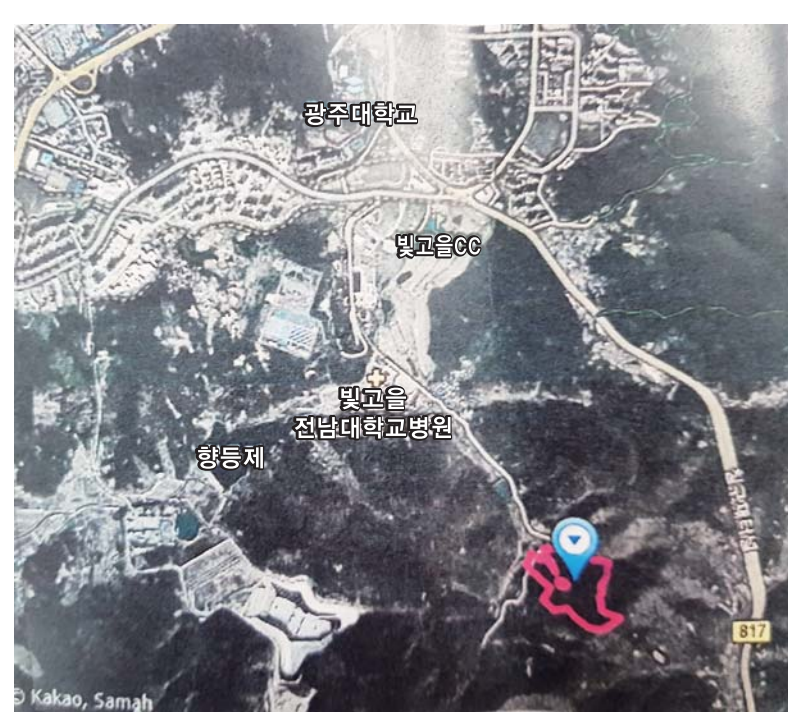
인도는 1969년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섰다.

ISRO는 인도 최초 인공위성인 '아리아바타'를 만들어 1975년 당시 소련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인도는 2008년 달 탐사 위성 찬드라얀 1호를 발사했다. 2014년에는 자체 제작한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인도는 지난 몇 년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위해 우주왕복선 개발 등에 힘쓰며 우주항공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